

“동사섭의 자비 실천하십시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동행에 자비나눔 기금전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사진)이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유난히 일찍부터 찾아온 추위로 인해 독거노인, 결혼가정, 노숙인 등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이 있음에 항상 안타깝다”면서 “차가운 속에서도 마음의 온기를 담아서 주변을 돌아보는 세모가 되도록 모든 이가 동참하여 동사섭(同事攝)의 자비(慈悲)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제 스님은 종정으로 승좌한 이래로 해마다 초파일과 연말 빠지지 않고 주위



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22일 자비나눔기금 1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같은 해 연말에는 사부대중이 자비행에 나서기를 기원하며 1천만 원을 후원했다. 올해 4월에는 세월호 피해지원 성금 5백만 원을 쾌척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기증, 佛心の 나눔입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기증문화재 캠페인 전개

구립 전국 100여 사찰 공문 보내 보존처리·문화재 등록도 진행 “망실 훼손 방지 및 연구 차원”

2014년 10월 30일 불교계에서는 근현대 고승들의 유품들이 대거 문화재로 등록됐다. 용성 스님(1864~1940)의 <신역대장경>, 한암 스님(1876~1951)의 가사 등이 한국 근현대사를 반영했다며 그 시대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 이처럼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는 가운데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이 캠페인을 통해 불교계 곳곳에 산적해 있는 고승들의 유품을 모으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근현대 불교문화재를 문중이나 개인이 소장하기 보다는 불교계가 공유해 공공의 격을 높이는 취지에서다.

“함께 채워가는 박물관”을 캐치프레이즈로 전개되는 이번 사업은 불상과 불화, 불구 뿐만 아니라 조계종 근현대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현대 고승들의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장삼, 불자, 죽비 등과 평소 모시던 원불, 문방사우, 기록사진 서신, 승려증 등 당시 시대가 반영될 수 있는 근현대 자료들을 기증받아, 보존처리뿐만 아니라 문화재 등록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함께 채워가는 박물관’을 기조로 유물기증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은 불교중앙박물관 전경

까지 추진한다. 기증자에게는 불교중앙박물관 기증서가 발급되며 전시 출품시 기증자 성명을 명시한다. 또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증관련 단독코너를 개설해 기증유물 설명과 기증자 인터뷰를 게재할 계획이다.

문화재 기증 방법은 박물관 방문 및 전화(02-2011-1965)로 가능하다. 기증이 접수되면 기증 심의위원회에서 기증대상 유물의 가치를 평가해 문화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박물관장 화법 스님은 “불교문화재 기증은 후손에게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전해주고, 종단이 불교문화재를 흠여지지 않도록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박물관에서는 개인소장자들이 문화재를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망실,

훼손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문화재의 연구와 전시를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며 일선 사찰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 측은 2014년 12월 전국사찰 100여 곳에 캠페인 공문과 포스터 등을 보낸 상태로 현재 청도 운문사 고서와 무진장 스님 유품 20건 등 총 100여 건이 기증·기탁된 상태다.

황지욱 학예사는 “국립박물관은 기증 비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박물관의 경우 유관단체에서 많은 기증을 하는 상태로 기증을 통해 문화재 등록으로 적극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이에 대해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교계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구립 29일 진행된 세월호 현장 봉사자 표창식에서 진도사암연합회 장법일 스님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다.

“세월호 아픔 보듬기, 불교 신뢰 높였다”

자승 스님, 구립 29일 자원봉사 스님들 표창 수여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에 나선 스님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립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팽목항을 비롯한 각종 현장에서 기도와 봉사 활동 등을 펼친 스님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조계종은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 날인 4월 17일 세월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봉사단을 파견해 227일이라는 장시간동안 팽목항, 진도체육관, 안산합동분향소,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쳤다.

세월호 참사 지원활동 공로 포상을 받은 스님은 △법일스님(진도사암연합회 회장, 진도 향적사 주지, 진도 현장본부 본부

장) △진현스님(전 진도 쌍계사 주지, 진도 현장본부 부본부장) △금강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진도 현장본부 부본부장) △선일스님(진도 현장본부 도감, 팽목항 법당 지킴이) △법전스님(진도 체육관 법당 지킴이) △원웅스님(팽목항 법당 지킴이) △원돈스님(시흥 대각사 주지, 안산에서 주도적으로 장례 및 49재 봉행) △지완스님(진도 체육관 지킴이) △도철스님(광화문 세월호 국민 단식 32일 동참) △항명스님(안산 쌍계사 주지, 안산 합동분향소 총괄) 등 총 10명이다.

수석식 이후 자승 스님은 “22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봉사활동에 나선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스님들의 활동은 사회에 많은 감동을 가져왔고, 불교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치하했다. **신성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2월 25일자 1024호 5면 ‘2천 청중 법원에 쫓는 노래 향연’에서 ‘**지장선원장 현호 스님**’이 ‘지장선원장 현호 스님’으로 잘못 표기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사찰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안돼요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적발 89곳 대다수 무소속 사찰 총 102곳 명단 중 과반 넘어 투명한 재정 관리 필요성 높아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대다수가 불교 사찰과 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사찰 대부분이 소속 종단이 없어 사실상 계도가 어렵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최근 거짓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68개와 단체 34개 등 총 102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판보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102개 명단 중 불교는 89곳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다른 종교는 개신교 3곳, 대순 진리회 1곳이 포함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의무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추정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곳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불교중앙협의회 소속 종단 가운데 원효종은 종단 명의로 총 374건 7억7700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다.

또한 조계종, 태고종, 대승종, 원효종, 법륜종은 소속 사찰이 기부금 영수증을 부정 발급해 명단에 올랐다.

조계종 소속 사찰로는 광주 향림사(153건 6200만원), 청도 정혜사(286건 8억 4100만원) 등 2곳이다. 명단에는 울산 대승사와 밀양 약천사가 조계종 사찰로 나왔지만, 소속 사찰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 소속 사찰들의 부정 발급은 가장 많았다. 명단에 공개된 소속 사찰로는 울산 봉호사(915건 4억8800만원), 여수 성불사(638건 7억8900만원), 진주 실상교

원(371건 5억2000만원), 양산 용연사(403건 4억9900만원), 남원 용주암(38건 7500만원), 영동 원각사(33건 3400만원), 정읍 천일암(107건 1억7200만원), 창원 금강사(307건, 6억1600만원), 장수 세심사(119건 1억8100만원), 함양 연화사(305건 5억4500만원) 등이다.

종단이 허위 발급했던 원효종은 소속 사찰인 창원 관음정사(272건 4억7600만원), 울산 평해사(411건 2억7200만원)가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문제가 됐다.

대승종 소속 사찰로는 구례 상은사(204건 5억6100만원)가 법륜종은 대전 칠불사(375건 5억2300만원)의 거짓영수증을 발급했다.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종립대 불교학과 학생 지원 ‘활발’

대학별 1.8~3.3:1 경쟁률

동국대를 비롯한 종립대학 불교대학에 학생들의 활발한 지원이 이어졌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서울캠퍼스 정시 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불교학부 24명 모집에 78명이 지원해 3.25대 1을, 불교사회복지학과에는 9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3.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국대의 전체 경쟁률은 4.47대 1로 2013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불교학부 16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2.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불교아동보육학과는 1.8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체 경쟁률은 4.77대 1로 2013년의 3.27대 1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경우 서울캠퍼스간 이동제도 및 파라미터캡리지, 기숙형 대학 등의 장점이 경쟁률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강대의 경우 사회복지학과는 3.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불교학과는 1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었다. 전체 경쟁률은 1.2대 1을 기록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불학원 사무국장 지오 스님 임명

교육원 구립 29일 임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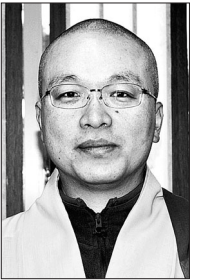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지오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구립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지오 스님을 임명했다. 현승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후 “불학연구소는 승가교육의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로 승가교육과 개혁에 대한 정책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오 스님은 도성 스님을 은사로 2000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백양사 고불총림, 파계사, 봉암사, 통도사 영축총림 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서울 화계사에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도 활동했다.

이와함께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에는 박소령, 최애리 씨가 채용됐다. 박소령 상임연구원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및 동 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교전번역원을 졸업했다.

최애리 연구원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를 전공했다. **신성민 기자**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망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雲寺

방장 학봉 지선 주지 원일

총림대 중일동

www.baekyangsa.or.kr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전화 061)392-7502 / 전송 061)392-2081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망명 온 누리에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문 법성 혜암

감찰원장	동일 학봉	기획실장	영산 동우	총회 의장	대공 동국
문화원장	원호 동암	총무부장	선법 태산	총회부의장	도진 동영
교육원장	백천 동담	부산교구	동암 원호	총회 의원	일동
포교원장	혜각 동성	충남교구	도진		
사회원장	덕진 도광	경남교구	대비		
복지원장	무관 도원	경기교구	덕진 도광		
사서실장	동판				

중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3장, 이력서 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1)336-0108, 323-0108 /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